

수업컨설팅 및 식생활수업에 대한 가정과교사의 인식 조사

김윤희*¹⁾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 Survey of the Cognition on Teaching Consulting and Dietary Class of Home Economics Teachers

Kim, Yun-Hwa*¹⁾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eaching consulting and dietary educa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s. The subjects consisted of 139 Home Economics teachers in Korea. The perceptions of Home Economics teachers on their teaching class were as follows: the teachers who had a lot of psychological burden on their open classes, 62.6%;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teaching, 29.5%; who had been teaching consulting, 40.3%; consulting is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truction, 46.8%; who wanted to receive teaching consulting, 46.1%, who wanted to receive teaching consulting excellent colleagues, 76.3%. The most of the Home Economics teachers had a positive attitude on the teaching consulting. The perceptions of teaching strategies of dietary teaching classes were as follows: using audio-visual materials for students concentrate, 47.5%; observing the students reactions and feedback for individual variation, 73.4%; descriptive class for main teaching method, 58.3%. The difficulties of teaching dietary class were as follows: total mean, 2.60/5.00; considering individual differences, 3.26; involving students in activities, 3.11; selection of teaching media, 2.88; production of media, 2.88; planning teacher and student activities, 2.85. Home Economics teachers have to lead dietary education in society and schools but they feel a lot of psychological burden on opening teaching class. Therefor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recommended to devote consistent efforts to strengthen teaching ab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teaching ability, teaching reflection, consulting and actual performance of self-supervision.

Key words: Home Economics teachers, teaching consulting, dietary education

1) 교신저자: Kim, Yun Hwa,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Tel: 010-8098-3789, Fax: 053-950-6229, E-mail: kyhwa47@gmail.com

2)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B00335)

I. 서론

학교교육의 성공은 유능하고 우수한 교사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루어지며, 교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다(Choi, 2011). 그러나 한국 교사의 리더십 수준은 보통 이상이지만 수업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수업지도에서 공동체성이 낮아 한국 교사의 수업은 특히 중·고등학교 수업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 기보다는 교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Chung, Kim, Kim, & Kim, 2008), 초임교사들뿐 아니라 교직경력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중견교사,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교사들은 학생 특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흥미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소외된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기가 어렵다고 보고되어(Kim, 2011)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및 개선은 도전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해 2010년부터 현장교사의 교원능력평가가 학생생활지도와 학습지도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하지만 이를 위한 수업공개는 초임교사와 경력교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자신의 수업성찰과 관련한 안목과 능력 뿐 아니라 수업관련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장학은 강제적, 권위적, 위계적 성격이 강해 컨설팅장학과 수업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Go & Chae, 2010; 이혁규 등, 2011; Cho, 2012).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가정교과는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고,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며,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및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고등사고 능력을 기르고,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주도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며,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건강가정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향점으로 의식주생활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식생활영역은 건강한 식생활 실천 능력을 기르기 위한 식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며, 이를 개선하는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Kim, 2010a; Ministry of Education, 2011). 동시에 영양교육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생명과 건강, 안전, 생산과 소비, 환경과 자원교육, 자신과 타인을 이해해 가는 과정의 교육으로 인간의 전반적 삶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Jeon, 2010).

최근 우리나라는 비만인구 급증, 아침결식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미래의 인재인 청소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만 2~18세)의 비만인구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하였고, 성인 비만인구도 1998년 26.0%에서 2011년에는 31.9%로 증가되었으며, 성인 남자의 비만율(35.2%)은 미국(33.9%) 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어(CDC & NCHS, 201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식습관의 정착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차원 뿐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과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교육의 수월성과 적시성, 가역성 등으로 인해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인 학교 식생활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Jeo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직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컨설팅 및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생활교육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교원능력 평가, 수업공개와 관련한 가정과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가정교과의 식생활교육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장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수업 컨설팅

교사는 학교교육 활동의 주체로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일이 주된 임무이므로 수업평가를 통해 수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강점, 발전방안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업능력 개발을 위

한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Kang & Moon, 2009). 하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수업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수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려는 교사는 드물며, 수업을 공개하더라도 자신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Lee, 2007). 최근 교원의 전문성 진단을 통한 전문적 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습지도영역 평가는 수업준비(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노력,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교수·학습 전략 수립), 수업실행(수업의 도입, 교사의 발문, 교사의 태도, 교사·학생 상호작용), 평가 및 활용(학습 자료의 활용, 수업의 진행, 학습정리)의 3개 요소에서 12개 지표를 5단 척도 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응답을 병행하도록 권장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교실에서의 교수행동에 영향을 주고, 교사가 수업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만큼 실천하게 되므로 교수·학습의 질 개선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Kember & Kwan, 2000; Kane, Sandretto, & Heath, 2002). 따라서 수업전문성을 높이고, 수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기주도성이 매우 중요하다(이혁규, 2009). Kwon, Lee, & Lee(2011)의 수업문화 연구에서 가정교사들은 교사 간 협력, 학생중심 수업, 수업자료 준비, 평가 활용 등의 요인에서 긍정적인 수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나 소극적 수업 방식, 수업 중 학생 행동요인에서는 부정적인 수업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o와 Chae(2010)의 중학교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교사는 자기장학과 동료장학이 도움을 가장 많이 주며, 장학으로 도움을 얻는 분야는 장학유형에 상관없이 가정교수법이었고, 다음으로 교과내용이었다. 또한 교수·학습 개선활동에 부정적, 소극적 태도가 교내 자율장학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꼽았고, 항상 열심히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교사를 장학담당자로 가장 선호하였으며, 교내 자율장학 후 교사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평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수업컨설팅은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컨설팅가 수업문제에 대해 진단, 조언, 처방 등을 통한 수업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활동으로 정의되며, 수

업장학과 달리 자발성, 컨설팅트의 전문성, 자문성, 독립성, 한시성, 학습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Park, 2011). Cho(2012)는 수업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컨설팅이 마이크로티칭과 연계될 때 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Park(2011)의 수업컨설팅의 실상과 그것의 해체 연구에서는 수업컨설팅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라는 고민과 그에 대한 조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먼저 ‘이 과정을 왜 가르치는가?’, ‘이 교과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수업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 필요하며, 수업 컨설팅이 교사수업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모두가 비슷한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형식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업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수업 본질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기반이 되는 수업컨설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가정교과교육과 식생활교육 수업

가정교과교육은 최근 가정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 가정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변화, 다문화사회의 도래, 녹색생활 등이 부각되면서 배려와 나눔의 실천, 녹색 의식주생활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등의 내용 및 가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인간애와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다루어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과 인성교육의 경험 제공하기, 자기관리 능력,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진로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1).

최근 식생활영역에서의 well-being 열풍은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지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증가시켜 식생활교육이 사회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Jeon, 2010), 학교교육에서 식생활교육은 기술·가정, 체육, 과학, 도덕, 사회 등의 일반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급식활동과 관련한 학교소식지, 가정통신문, 교내방송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0b). 그 중 가정교과의 식생활교육에서는 식생활과 건강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식생활 문제들을

실천적으로 해결하여 나와 가족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며(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1),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제시되고 있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전 조항을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Kim & Kim, 2010; Jeon, 2010). 또한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기의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생활을 반성, 평가해 보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식생활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여 실천하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영위하며, 음식 만들기를 통해 감사, 배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학교 식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과교사는 통합적 관점에서 삶의 교육이 지향하는 공통점을 파악한 후 전문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식생활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Jeon, 2010).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가정과교사의 수업컨설팅 및 식생활교육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인식 3문항을 5점 척도로, 수업컨설팅 인식에 관한 8문항과 식생활수업 전략에 관한 4문항을 선다형으로, 식생활 수업 시 영역별 어려운 정도에 관한 22문항(학습내용 구성 2문항, 수업전략 6문항, 실행 10문항, 전문지식 4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수업컨설팅에 대한 인식 문항은 ‘초등과학 수업컨설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Choi & Noh, 2008)’를 참고로 컨설팅에 대

한 인식문항을 개발하여 현직 가정과교사 2인, 장학사 1인의 검토를 거쳐 제작되었다. 1차 설문지는 2012년 1월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226부를 배부하여 109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대학원생, 교장, 교감, 장학사 및 불성실한 답을 한 18부를 제외한 91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2차 설문지는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반송봉투를 동봉한 우편을 통해 전국 중학교 가정과교사에게 400부를 배부하여 53부를 회수하였고, 부실한 답변을 한 5부를 제외한 48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Table 1>과 같다. 가정교과의 식생활수업의 어려운 점에 대한 서술문항은 서면인터뷰 형식으로 대구·경북지역 가정과 교사 5인에게 전화로 허락을 받은 후 e-mail로 의견을 받아 3인의 응답내용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2.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값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등은 백분율과 빈도로 표시하였고, 연령과 경력에 따른 수업컨설팅 및 식생활수업에 관한 인식 차이는 χ^2 -test로 검증하였다. 가정교과 영역 중 식생활교육 수업 시 어려운 정도에 대한 평가문항의 신뢰도 검사를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내용구성 영역 0.835, 수업전략 영역 0.871, 수업실행 영역 0.915, 교수 전문지식 영역 0.843, 전체 영역 0.950으로 Nunnally(1978)가 제시한 0.70 수준을 만족하였다. 가정교과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식생활수업의 어려운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오차로 표시하였고, 연령과 경력에 따른 어려운 정도 비교는 F-value를 사용하였으며, one-way ANOVA와

Table 1. The ratio of recovered questionnaires

| Division | Distribution | Collection | Not using | Using | The ratio of recovery(%) |
|------------|--------------|------------|-----------|-------|--------------------------|
| Conference | 226 | 109 | 18 | 91 | 40.27 |
| Mail | 400 | 53 | 5 | 48 | 12.00 |
| Total | 626 | 162 | 23 | 139 | 22.20 |

Ryan-Einot-Gabriel-Welsch F test를 이용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가정교과 교사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가정교과교사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가정교과교사가 11명(7.9%),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광역시 42명(30.2%), 경기도 17명(12.2%), 강원도 6명(4.3%), 충청도 9명(6.5%), 전라도 24명(17.3%), 경상도 28명(20.1%), 제주도 2명(1.4%)으로 구성되었다. 중학교 근무 교사가 119명(85.6%), 고등학교 근무 교사가 20명(14.4%)이었고, 1급 정교사가 112명(80.6%), 2급 정교사가 27명(19.4%)이었으며, 가정교과 외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84명(60.4%)이었다. 평교사 92명(66.2%), 부장교사 47명(33.8%)이었으며, 20대 교사가 12명(8.6%), 30대 교사가 31명(22.3%), 40대 교사가 47명(33.8%), 50대 이상 교사가 49명(35.3%)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이 67명(48.2%), 대학원졸이 72명(51.8%)이었으며, 교육경력 3년 미만의 교사가 7명(5.0%), 3-10년이 34명(24.5%), 10-20년이 21명(15.1%), 20-25년이 34명(24.5%), 25년 이상 된 교사가 43명(30.9%)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s of Home Economics teachers

| Division | | N(%) |
|--------------------------------|-----------------------|-----------|
| | | N=139 |
| Area | Seoul | 11(7.9) |
| | Metropolitan | 42(30.2) |
| | Gyeonggi-do | 17(12.2) |
| | Gangwon-do | 6(4.3) |
| | Chungcheong-do | 9(6.5) |
| | Jeolla-do | 24(17.3) |
| | Gyeongsang-do | 28(20.1) |
| | Jeju-do | 2(1.4) |
| School level | Middle | 119(85.6) |
| | High | 20(14.4) |
| Teacher's certification | 1 st grade | 112(80.6) |
| | 2 nd grade | 27(19.4) |
| Other teacher's certifications | Having | 84(60.4) |
| | Nothing | 55(39.6) |
| Status | Ordinary | 92(66.2) |
| | Department manager | 47(33.8) |
| Ages(years old) | - 29 | 12(8.6) |
| | 30 - 39 | 31(22.3) |
| | 40 - 49 | 47(33.8) |
| | ≥ 50 | 49(35.3) |
| Education background | University | 67(48.2) |
| | Graduate school | 72(51.8) |
| Teacher career(years) | - 3 | 7(5.0) |
| | 3 - 10 | 34(24.5) |
| | 10 - 20 | 21(15.1) |
| | 20 - 25 | 34(24.5) |
| | ≥ 25 | 43(30.9) |

2. 연령과 경력에 따른 교과수업에 대한 인식

가정교과 수업과 관련한 조사대상자의 인식 조사결과는 <Figure 2~3>과 같다. 수업공개에 대한 부담은 $3.67 \pm 0.08/5.00$ 점으로 수업공개에 대한 가정교사의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20대 교사가 4.08 ± 0.15 점, 30대 교사가 3.55 ± 0.18 점, 40대 교사가 3.70 ± 0.14 점, 50대 교사가 3.61 ± 0.15 점이었으며, 교육경력 3년 미만의 교사가 4.29 ± 0.18 점, 3-10년 경력교사가 3.59 ± 0.17 점, 10-20년 경력교사가 3.57 ± 0.25 점, 20-25년 경력교사가 3.91 ± 0.14 점, 25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3.49 ± 0.15 점으로 20대 교사와 교육경력 3년 미만의 교사들이 수업공개에 대해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교과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학생평가는 $3.47 \pm 0.05/5.00$ 점으로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p < 0.05$) 30대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학생평가 점수가 3.71 ± 0.11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교사가

3.49 ± 0.07 점이었고, 20대 교사는 3.33 ± 0.14 점, 50대 교사는 3.33 ± 0.09 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교육경력 3년 미만의 교사가 3.14 ± 0.14 점, 3-10년 경력교사가 3.65 ± 0.10 점, 10-20년 경력교사가 3.57 ± 0.11 점, 20-25년 경력교사가 3.47 ± 0.09 점, 25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3.23 ± 0.10 점으로 교육경력 3년 미만의 교사들이 인식한 학생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Kwon, Lee와 Lee(2011)의 가정교과교사의 수업문화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항목 점수가 $2.50 \pm 0.78/5.00$ 점으로 보고되어 가정교과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자신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3.27 \pm 0.05/5.00$ 점으로 Park와 Shin(2006)의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교사의 교수행동, 교수자신감, 교수만족도’ 연구에서 보고된 가정영역에서의 수업계획, 수업활동, 평가영역에서의 교수만족도 $4.00/5.00$ 점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50대 이상 교사의 수업만족도가 3.35 ± 0.09 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교사가 3.29 ± 0.11 점, 40대 교사가 3.28 ± 0.08 점, 20대 교사가 2.92 ± 0.15 점 순으로 20대 교사의 수업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교육경력 3년 미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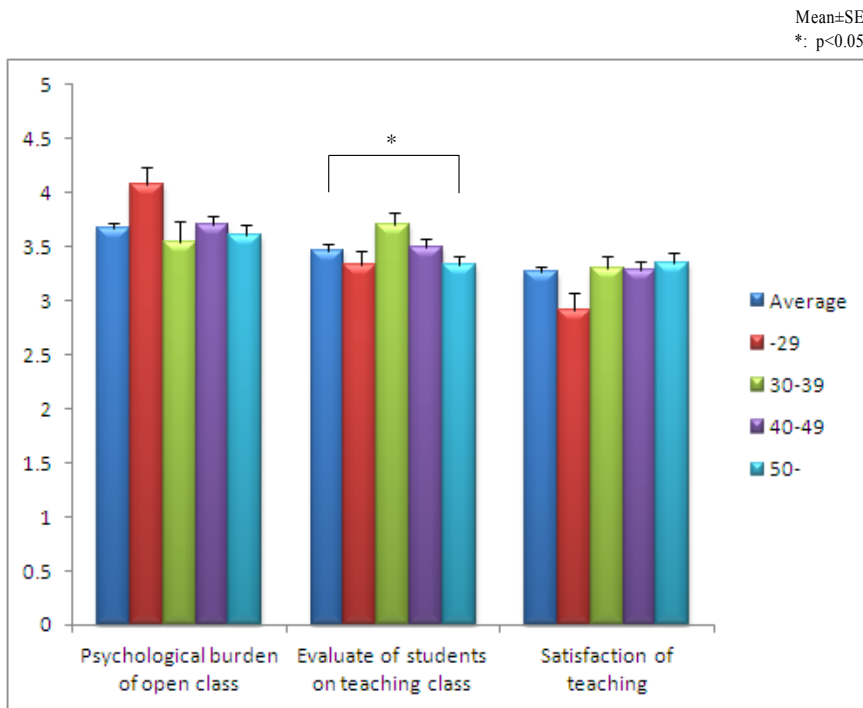


Figure 1. The perception on teaching class of Home Economics teachers as 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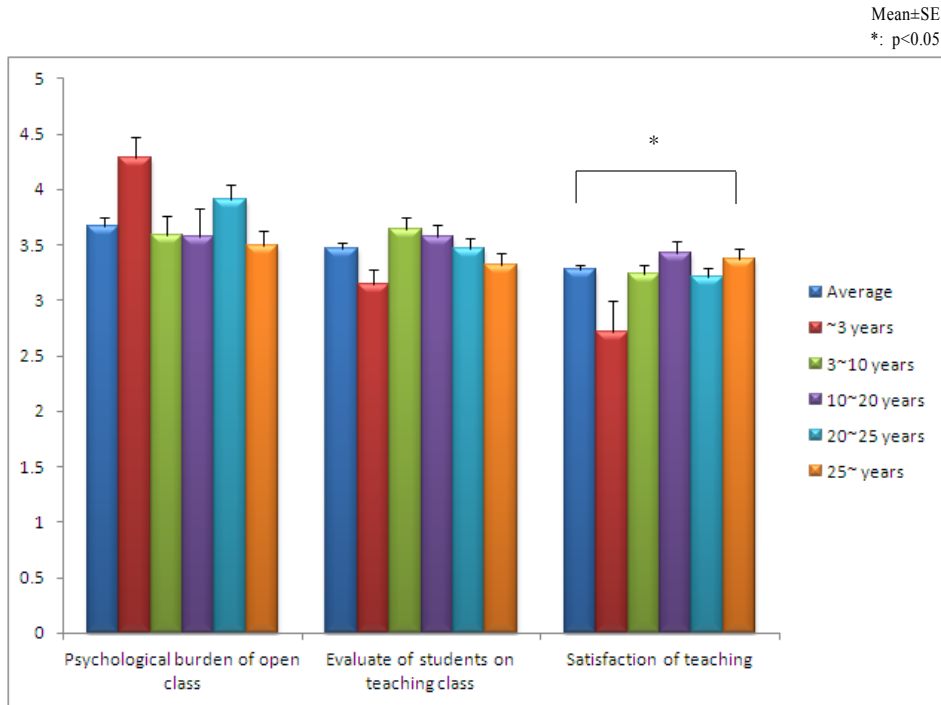


Figure 2. The perception on teaching class of Home Economics teachers as teaching careers

교사가 2.71±0.29점, 3-10년 경력교사가 3.24±0.09점, 10-20년 경력교사가 3.43±0.11점, 20-25년 경력교사가 3.21±0.08점, 25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3.37±0.10점으로 교육경력 3년 미만 교사들의 수업만족도가 가장 낮은 반면, 10-20년 경력 교사의 수업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따라서 20대 교사와 교육경력 3년 미만의 초임교사들이 수업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외부평가, 자신의 수업만족도에서 모두 점수가 낮아 이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업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있는 연수 및 컨설팅과 더불어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3. 연령과 경력에 따른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가정과교사의 수업컨설팅에 대한 인식은 <Table 3~4>와 같다. 수업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56명(40.3%), 컨설팅을 해준 경험만 있는 교사는 16명(11.5%),

컨설팅을 받아보기도 하고 해준 경험이 있는 교사는 19명(13.7%)이었으며, 받아본 적도 해준 적도 없는 교사는 48명(34.5%)이었다.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관련이 있어(p<0.05) 컨설팅을 받아본 교사는 20대, 40대, 3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컨설팅을 해준 경험은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많았으며, 컨설팅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는 30대, 50대, 40대, 20대 교사 순으로 낮았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65명(46.8%),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좋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68명(48.9%), 그다지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교사가 6명(4.3%)이었다. 수업컨설팅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고 응답한 교사가 11명(7.9%), 받고 싶다고 응답한 교사가 67명(48.2%), 보통 46명(33.1%), 받고 싶지 않다 11명(7.9%), 전혀 받고 싶지 않다 4명(2.9%)으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수업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여 가정과교사들은 수업컨설팅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대 교사의 50.0%, 30대 교사의 61.3%, 40대 교사의 57.4%, 50대 이상 교사의 53.0%가

Table 3. The perceptions on the teaching consulting as ages

| Division | | Total (n=139) | Ages(years) | | | | X ² | N(%) |
|---|--|------------------|-----------------------|-----------------------|------------------------|-----------------------|----------------|------|
| | | | -20 (n=12) | 30-40 (n=31) | 40-50 (n=47) | 50- (n=49) | | |
| Experiences of teaching consulting | I have received it. | 56(40.3) | 9(75.0) | 14(45.2) | 20(42.6) | 13(26.5) | 21.070* | |
| | I have provided it. | 16(11.5) | 0(0.0) | 1(3.2) | 8(17.0) | 7(14.3) | | |
| | I have received and provided it. | 19(13.7) | 0(0.0) | 1(3.2) | 7(14.9) | 11(22.4) | | |
| | Nothing | 48(34.5) | 3(25.0) | 15(48.4) | 12(25.5) | 18(36.7) | | |
| Necessity of teaching consulting |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truction. | 65(46.8) | 4(33.3) | 16(51.6) | 22(46.8) | 23(46.9) | 4.805 | |
| | It is not necessary although it is good. | 68(48.9) | 8(66.7) | 14(45.2) | 21(44.7) | 25(51.0) | | |
| | I don't need it. | 6(4.3) | 0(0.0) | 1(3.2) | 4(8.5) | 1(2.0) | | |
| | I don't need it at all. | 0(0.0) | 0(0.0) | 0(0.0) | 0(0.0) | 0(0.0) | | |
| If given the opportunity of teaching consulting | I want to receive it too much. | 11(7.9) | 1(8.3) | 5(16.1) | 4(8.5) | 1(2.0) | 10.099 | |
| | I want to receive it. | 67(48.2) | 5(41.7) | 14(45.2) | 23(48.9) | 25(51.0) | | |
| | Common | 46(33.1) | 5(41.7) | 7(22.6) | 16(34.0) | 18(36.7) | | |
| | I don't want to receive it. | 11(7.9) | 0(0.0) | 4(12.9) | 3(6.4) | 4(8.2) | | |
| | I don't want to receive it at all. | 4(2.9) | 1(8.3) | 1(3.2) | 1(2.1) | 1(2.0) | | |
| Who wanting to receive consulting | Home Economics teacher | 27(19.4) | 2(16.7) | 8(25.8) | 5(10.6) | 12(24.5) | 5.785 | |
| | Managers or supervisors | 2(1.4) | 0(0.0) | 0(0.0) | 1(2.1) | 1(2.0) | | |
| | Colleagues with expertise | 106(76.3) | 10(83.3) | 22(71.0) | 40(85.1) | 34(69.4) | | |
| | Others | 1(0.7) | 0(0.0) | 1(3.2) | 1(2.1) | 2(4.1) | | |
| Frequency of teaching consulting | Once/year | 47(33.8) | 4(33.3) | 9(29.0) | 15(31.9) | 19(38.8) | 9.220 | |
| | Once/semester | 43(30.9) | 5(41.7) | 7(22.6) | 14(29.8) | 17(34.7) | | |
| | Once/month | 1(0.7) | 0(0.0) | 1(3.2) | 0(0.0) | 0(0.0) | | |
| | Any time when consulting is required | 46(33.1) | 3(25.0) | 14(45.2) | 17(36.2) | 12(24.5) | | |
| | Others | 2(1.4) | 0(0.0) | 0(0.0) | 1(2.1) | 1(2.0) | | |
| The field that you want to receive consulting | Teaching and learning plan | 13(9.4) | 2(16.7) | 3(9.7) | 6(12.8) | 2(4.1) | 3.013 | |
| | Production of teaching media | 25(18.0) | 1(8.3) | 3(9.7) | 11(23.4) | 10(20.4) | 3.339 | |
| | Image data of instructional activities analysis | 36(25.9) | 4(33.3) ^{ab} | 5(16.1) ^{ab} | 7(14.9) ^a | 19(38.8) ^b | 9.219* | |
| | Producing assessment items | 6(4.3) | 0(0.0) | 3(9.7) | 2(4.3) | 1(2.0) | 3.313 | |
| | Activity sheets and report writing | 19(13.7) | 4(33.3) ^a | 7(22.6) ^{ab} | 4(8.5) ^b | 4(8.2) ^b | 8.337* | |
| | Teaching methods | 61(43.9) | 4(33.3) | 15(48.4) | 25(53.2) | 17(34.7) | 4.132 | |
| | The method of students attention | 23(16.5) | 3(25.0) | 6(19.4) | 3(6.4) | 11(22.4) | 5.550 | |
| | Others | 4(2.9) | 0(0.0) | 3(10.0) | 0(0.0) | 1(2.1) | 7.037 | |
| Providing consulting | Willing to | 88(63.3) | 10(83.3) | 22(71.0) | 33(70.2) | 23(46.9) | 9.472* | |
| | No | 51(36.7) | 2(16.7) | 9(29.0) | 14(29.8) | 26(53.1) | | |
| Efforts to improve the teaching ability | Degree | 25(17.9) | 2(16.7) | 9(29.0) | 7(14.9) | 7(14.3) | 3.338 | |
| | Training and group activities | 84(60.4) | 3(25.0) | 20(64.5) | 29(61.7) | 32(65.3) | 7.035 | |
| | Observing classes | 49(35.3) | 5(41.7) | 12(38.7) | 18(38.3) | 14(28.6) | 1.528 | |
| | Counseling (peers and experts, etc.) | 36(25.9) | 5(41.7) | 4(12.9) | 12(25.5) | 15(30.6) | 4.853 | |
| | Reading books and watching videos | 65(46.8) | 7(58.3) ^{ab} | 21(67.7) ^a | 19(40.4) ^{ab} | 18(36.7) ^b | 8.863* | |
| | Certifications | 10(7.2) | 1(8.3) ^{ab} | 6(19.4) ^a | 0(0.0) ^b | 3(6.1) ^{ab} | 10.617* | |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Ryan-Einot-Gabriel-Welsh F test at p<0.05.

*p<0.05.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여 30대 교사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경력 3년 미만 교사의 53.2%, 3-10년 경력교사의 52.9%, 10-20년 경력교사의 76.1%, 20-25년 경력교사의 44.1%, 25년 이상 경력교사의 58.1%가 수업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여 10-20년 교육경력의 가

정과교사들이 수업컨설팅에 대한 자세가 매우 적극적이며, 25년 이상의 경력교사들도 수업컨설팅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람은 교과교육 전공교수가 27명 (19.4%), 관리자 또는 장학사 2명(1.4%), 전문적 지식과 능

Table 4. The perceptions on the teaching consulting as teaching career

| Division | | Teacher career(years) | | | | | N(%) |
|---|--|-----------------------|-----------------------|------------------------|-----------------------|-----------------------|---------------------|
| | | -3 (n=7) | 3-10 (n=34) | 10-20 (n=21) | 20-25 (n=34) | 25- (n=43) | |
| Experiences of teaching consulting | I have received it. | 6(85.7) | 15(44.1) | 10(47.6) | 12(35.3) | 13(30.2) | 17.885 |
| | I have provided it. | 0(0.0) | 1(2.9) | 3(14.3) | 4(11.8) | 8(18.6) | |
| | I have received and provided it. | 0(0.0) | 2(5.9) | 2(9.5) | 6(17.6) | 9(20.9) | |
| | Nothing | 1(14.3) | 16(47.1) | 6(28.6) | 12(35.3) | 13(30.2) | |
| Necessity of teaching consulting |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truction. | 3(42.9) | 14(41.2) | 11(52.4) | 12(35.3) | 25(58.1) | 5.454 |
| | It is not necessary although it is good. | 4(57.1) | 18(52.9) | 9(42.9) | 20(58.8) | 17(39.5) | |
| | I don't need it. | 0(0.0) | 2(5.9) | 1(4.8) | 2(5.9) | 1(2.3) | |
| | I don't need it at all. | 0(0.0) | 0(0.0) | 0(0.0) | 0(0.0) | 0(0.0) | |
| If given the opportunity of teaching consulting | I want to receive it too much. | 1(14.3) | 3(8.8) | 4(19.0) | 2(5.9) | 1(2.3) | 15.983 |
| | I want to receive it. | 3(42.9) | 15(44.1) | 12(57.1) | 13(38.2) | 24(55.8) | |
| | Common | 2(28.6) | 11(32.4) | 3(14.3) | 16(47.1) | 14(32.6) | |
| | I don't want to receive it. | 1(14.3) | 3(8.8) | 2(9.5) | 3(8.8) | 2(4.7) | |
| Who wanting to receive consulting | I don't want to receive it at all. | 0(0.0) | 2(5.9) | 0(0.0) | 0(0.0) | 2(4.7) | 14.152 |
| | Home Economics teacher | 1(14.3) | 9(26.5) | 2(9.5) | 3(8.8) | 12(27.9) | |
| | Managers or supervisors | 0(0.0) | 0(0.0) | 1(4.8) | 0(0.0) | 1(2.3) | |
| | Colleagues with expertise | 5(71.4) | 25(73.5) | 17(81.0) | 30(88.2) | 29(67.4) | |
| Frequency of teaching consulting | Others | 1(14.3) | 0(0.0) | 1(4.8) | 1(2.9) | 1(2.3) | 14.573 |
| | Once/year | 2(28.6) | 10(29.4) | 7(33.3) | 15(44.1) | 13(30.2) | |
| | Once/semester | 2(28.6) | 9(26.5) | 8(38.1) | 8(23.5) | 16(37.2) | |
| | Once/month | 0(0.0) | 0(0.0) | 1(4.8) | 0(0.0) | 0(0.0) | |
| | Any time when consulting is required | 3(42.9) | 15(44.1) | 4(19.0) | 11(32.4) | 13(30.2) | |
| The field that you want to receive consulting | Others | 0(0.0) | 0(0.0) | 1(4.8) | 0(0.0) | 1(2.3) | 3.310 |
| | Teaching and learning plan | 1(14.3) | 2(5.9) | 4(19.0) | 3(8.8) | 3(7.0) | |
| | Production of teaching media | 2(28.6) | 3(8.8) | 3(14.3) | 6(17.6) | 11(25.6) | |
| | Image data of instructional activities analysis | 2(28.6) | 7(20.6) | 3(14.3) | 9(26.5) | 14(32.6) | |
| | Producing assessment items | 1(14.3) | 2(5.9) | 1(4.8) | 1(2.9) | 1(2.3) | |
| | Activity sheets and report writing | 2(28.6) | 9(26.5) | 1(4.8) | 3(8.8) | 4(9.3) | |
| | Teaching methods | 0(0.0) | 17(50.0) | 11(52.4) | 18(52.9) | 15(34.9) | |
| | The method of students attention | 3(42.9) | 4(11.8) | 4(19.0) | 2(5.9) | 10(23.3) | |
| Others | 0(0.0) | 3(8.8) | 0(0.0) | 0(0.0) | 1(2.4) | | |
| Providing consulting | Willing to | 5(71.4) | 26(76.5) | 14(66.7) | 22(64.7) | 21(48.8) | 6.742 |
| | No | 2(28.6) | 8(23.5) | 7(33.3) | 12(35.3) | 22(51.2) | |
| Efforts to improve the teaching ability | Degree | 1(14.3) | 9(26.5) | 5(23.8) | 4(11.8) | 6(14.0) | 3.573 |
| | Training and group activities | 2(28.6) | 19(55.9) | 14(66.7) | 21(61.8) | 28(65.1) | 4.027 |
| | Observing classes | 2(28.6) | 15(44.1) | 11(52.4) | 9(26.5) | 12(27.9) | 6.172 |
| | Counseling (peers and experts, etc.) | 1(14.3) | 7(20.6) | 6(28.6) | 9(26.5) | 13(30.2) | 1.496 |
| | Reading books and watching videos | 4(57.1) ^{ab} | 24(70.6) ^a | 10(47.6) ^{ab} | 11(32.4) ^b | 16(37.2) ^b | 12.474 [*] |
| | Certifications | 0(0.0) | 6(17.6) | 1(4.8) | 0(0.0) | 3(7.0) | 8.931 |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Ryan-Einot-Gabriel-Welsh F test at p<0.05.

*p<0.05.

력을 가진 동료교사 106명(76.3%), 기타 1명(0.7%)으로 동료 교사에 의한 컨설팅 요구가 높았고, 수업컨설턴트의 자격으로 ‘컨설팅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14명(10.1%), ‘수업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98명(70.5%), ‘교과내용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26명(18.7%), ‘교

과관련 연구대회 참여 실적이 풍부해야 한다.’ 1명(0.7%)으로 수업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동료교사에 의한 컨설팅을 원하였다.

수업컨설팅의 시기 및 횟수는 연 1회가 47명(33.8%), 연 2회 43명(30.9%), 월 1회 1명(0.7%), 필요할 때 46명

(33.1%), 기타 2명(1.4%)으로 컨설팅이 필요할 때나 연 1-2회의 컨설팅을 원하고 있었다. 수업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야는 교수·학습과정안이 13명(9.4%), 수업매체 및 자료제작이 25명(18.0%), 수업활동 영상자료 분석이 36명(25.9%), 평가문항 제작이 6명(4.3%), 활동지 및 보고서 작성이 19명(13.7%), 수업방법이 61명(43.9%), 기타가 4명(2.9%)으로 수업방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컨설팅 제공의사가 있는 교사는 88명(63.3%), 제공의사가 없는 교사가 51명(36.7%)으로 50대 교사의 컨설팅 제공의사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학위취득이 25명(17.9%), 연수 및 연구회 활동 84명(60.4%), 강연 및 수업참관 49명(35.3%), 수업장학과 동교과 및 전문가 상담 36명(25.9%)이었으며, 관련서적 및 동영상 연구는 65명(46.8%)으로 30대 교사, 교육경력 3-10년의 교사가 유의적으로 많았다($p<0.05$). 관련 자격증 취득은 10명(7.2%)으로 30대 교사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정교사들은 관련서적 및 동영상을 통한 수업능력 향상을 원하는 교사가 유의적으로 많으므로 가정교사 수업능력 향상 및 교과교육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위해 전문서적 및 동영상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매체 개발이 요구되었다.

교육의 질적 수월성은 교원의 전문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교사는 스스로 자기를 혁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자기자신을 계발하며, 직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Lee, Lee, & Shin, 2010). Grossman, Hammerness와 McDonald(2009)는 가르치는 일의 복합적인 능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교사 자신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고, 다음으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습득하여 이를 가르치는 동안 끊임없이 연습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적 수업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Seo(2005)의 교사 전문성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를 지식 적용자, 실행자,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 창출자로 볼 때 연구자이며, 자신의 실천과 실천 기저에 있는 지식과 가치를 표면화하고, 실천적 지식을 형성시켜 나가면서 교사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교사

는 수업공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업능력 향상 및 수업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연구, 훈련, 컨설팅을 통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여 교과교육 특히 식생활교육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연령과 경력에 따른 식생활교육 수업에 대한 인식

식생활수업에서 사용하는 수업전략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가정교사가 식생활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 활용이 66명(4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 46명(33.1%), 학생활동 17명(12.2%), 학생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 7명(5.0%), 표정과 언어 사용 1명(0.7%), 과제제시 및 평가 2명(1.4%) 순으로 식생활수업 집중에 대한 전략을 시청각자료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한 연구와 교사연수 및 수업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수업에서 학생의 개인차에 대한 수업전략으로는 학생의 반응 관찰을 통한 피드백이 102명(73.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복습 관리 22명(15.8%), 과제의 난이도 조절 9명(6.5%), 방과후 지도 및 상담 1명(0.7%), 기타로 응답한 교사가 5명(3.6%) 순이었으며, 교사경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p<0.05$) 교육경력 3년 미만의 교사와 20-25년 경력교사들이 개인차에 대한 교육전략으로 예·복습이나 방과후 지도 및 상담 등의 활동을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업방법으로는 설명식수업 81명(58.3%), 토론·토의수업 6명(4.3%), 탐구학습 14명(10.1%), 문제해결수업 6명(4.3%), 실험·실습수업 25명(18.0%), 기타 7명(5.0%)으로 40대 이상의 교사들이 식생활수업에서 실험·실습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교육경력 3년 미만 교사들은 주로 설명식수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p<0.05$) 학생활동 계획 및 지도를 위한 다양한 수업방식에 대한 교사연수, 컨설팅 및 개인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식생활수업에서 학생활동이 20%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5. The teaching strategies in dietary classes of Home Economics teachers as age and career

| | | N(%) | | | | | | | | | | | |
|-----------------------------------|-------------------------------------|-----------------|-----------------|-----------------|---------------|----------------|-----------------------|----------------|-----------------|-----------------|---------------|----------------|---------|
| Division | Total | Ages(years old) | | | | χ ² | Teacher career(years) | | | | | χ ² | |
| | | -29 (n=12) | 30-39 (n=31) | 40-49 (n=47) | 50- (n=49) | | -3 (n=7) | 3-10 (n=34) | 10-20 (n=21) | 20-25 (n=34) | 25- (n=43) | | |
| Strategy for students concentrate | Various visual aids | 66(47.5) | 7(58.3) | 14(45.2) | 21(44.7) | 24(49.0) | | 7(100) | 13(38.2) | 12(57.1) | 17(50.0) | 17(39.5) | |
| | Various and specific examples | 46(33.1) | 5(41.7) | 8(25.8) | 16(34.0) | 17(34.7) | | 0(0.0) | 14(41.2) | 2(9.5) | 14(41.2) | 16(37.2) | |
| | Students activity | 17(12.2) | 0(0.0) | 4(12.9) | 8(17.0) | 5(10.2) | | 0(0.0) | 4(11.8) | 4(19.0) | 2(5.9) | 7(16.3) | |
| | Feedback on student responses | 7(5.0) | 0(0.0) | 3(9.7) | 2(4.3) | 2(4.1) | 14.654 | 0(0.0) | 2(5.9) | 2(9.5) | 1(2.9) | 2(4.7) | 23.605 |
| | Language and facial expression | 1(0.7) | 0(0.0) | 0(0.0) | 0(0.0) | 1(2.0) | | 0(0.0) | 0(0.0) | 0(0.0) | 0(0.0) | 1(2.3) | |
| | Homework and evaluation | 2(1.4) | 0(0.0) | 2(6.5) | 0(0.0) | 0(0.0) | | 0(0.0) | 1(2.9) | 1(4.8) | 0(0.0) | 0(0.0) | |
| Strategy of students variation | Feedback on students response | 102(73.4) | 9(75.0) | 25(80.6) | 32(68.1) | 36(73.5) | | 5(71.4) | 28(82.4) | 16(76.2) | 24(70.6) | 29(67.4) | |
| | Management of preparations | 22(15.8) | 2(16.7) | 4(12.9) | 8(17.0) | 8(16.3) | 17.396 | 1(14.3) | 5(14.7) | 1(4.8) | 8(23.5) | 7(16.3) | 29.676* |
| | Adjustment of difficulty | 9(6.5) | 0(0.0) | 1(3.2) | 6(12.8) | 2(4.1) | | 0(0.0) | 1(2.9) | 3(14.3) | 1(2.9) | 4(9.3) | |
| | Teaching and counseling after class | 1(0.7) | 1(8.3) | 0(0.0) | 0(0.0) | 0(0.0) | | 1(14.3) | 0(0.0) | 0(0.0) | 0(0.0) | 0(0.0) | |
| | Others | 5(3.6) | 0(0.0) | 1(3.2) | 1(2.1) | 3(6.1) | | 0(0.0) | 0(0.0) | 1(4.8) | 1(2.9) | 3(7.0) | |
| Main teaching method | Descriptive class | 81(58.3) | 9(75.0) | 20(64.5) | 24(51.1) | 28(57.1) | | 7(100.0) | 20(58.8) | 11(52.4) | 19(55.9) | 24(55.8) | |
| | Discuss and debate | 6(4.3) | 0(0.0) | 0(0.0) | 4(8.5) | 2(4.1) | | 0(0.0) | 0(0.0) | 2(9.5) | 1(2.9) | 3(7.0) | |
| | Investigation | 14(10.1) | 2(16.7) | 1(3.2) | 4(8.5) | 7(14.3) | 21.218 | 0(0.0) | 4(11.8) | 1(4.8) | 5(14.7) | 4(9.3) | 30.071* |
| | Project | 6(4.3) | 0(0.0) | 1(3.2) | 3(6.4) | 2(4.1) | | 0(0.0) | 0(0.0) | 3(14.3) | 1(2.9) | 2(4.7) | |
| | Experiment and practice | 25(18.0) | 1(8.3) | 4(12.9) | 10(21.3) | 10(20.4) | | 0(0.0) | 5(14.7) | 2(9.5) | 8(23.5) | 10(23.3) | |
| | Others | 7(5.0) | 0(0.0) | 5(16.1) | 2(4.3) | 0(0.0) | | 0(0.0) | 5(14.7) | 2(9.5) | 0(0.0) | 0(0.0) | |
| The rate of students activity | 0 - 20% | 33(23.7) | 0(0.0) | 12(38.7) | 5(10.6) | 16(32.7) | | 2(28.6) | 9(26.5) | 3(14.3) | 7(20.6) | 12(23.7) | |
| | 20 - 40% | 68(48.9) | 7(58.3) | 11(35.5) | 27(57.4) | 23(46.9) | | 4(57.1) | 15(44.1) | 12(57.1) | 16(47.1) | 21(48.8) | |
| | 40 - 60% | 33(23.7) | 4(33.3) | 6(19.4) | 13(27.7) | 10(20.4) | 17.431* | 1(14.3) | 7(20.6) | 6(28.6) | 9(26.5) | 10(23.3) | 8.347 |
| | 60 - 80% | 5(3.6) | 1(8.3) | 2(6.5) | 2(4.3) | 0(0.0) | | 0(0.0) | 3(8.8) | 0(0.0) | 2(5.9) | 0(0.0) | |
| | 80% | 0(0.0) | 0(0.0) | 0(0.0) | 0(0.0) | 0(0.0) | | 0(0.0) | 0(0.0) | 0(0.0) | 0(0.0) | 0(0.0) | |

*p<0.05.

고 응답한 교사가 33명(23.7%), 20-40% 68명(48.9%), 40-60% 33명(23.7%), 60-80% 5명(3.6%)으로 48.9%의 교사가 20-40%의 학생활동으로 식생활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대와 40대 교사들의 수업이 30대와 50대 이상 교사들에 비해 학생활동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p<0.05). Kwon(2010)의 좋은 수업에 관한 교사 인식 연구에서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업전략과 더불어 수업의 변화방향에 부합하는 인식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식습관 정착 및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학생활동에 대한 연구 및 학생활동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업전략이 요구되었다.

5. 연령과 경력에 따른 식생활수업의 영역별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가정과교사의 식생활수업에서의 영역별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6~7>과 같다. 세부영역 중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3.26±1.01), 학생 참여유도(3.11±1.01), 적절한 교수매체 선정 및 제작(2.88±1.12), 교수법에 대한 지식(2.86±1.04) 영역 순으로 높았고, 전체 평균은 2.60±0.70/5.00 점으로 식생활수업이 가정과교사에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ark과 Shin(2006)의 연구에서도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영역에 대한 가정전공교사의 교수자 신감은 4.54/5.00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높게 보고되어 가정과교사들은 식생활수업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Table 6. The awareness on the difficulties of dietary classes of Home Economics teachers as age

| Division | Mean | Ages(years) | | | | F | Cronbach's alpha | |
|-----------------------|-------------------------------------|-------------|------------------------|-------------------------|-------------------------|------------------------|---------------------|-------|
| | | -29 (n=12) | 30-39 (n=31) | 40-49 (n=47) | 50- (n=49) | | | |
| Set up learning items | Theme | 2.45±0.98 | 2.67±0.99 | 2.45±1.03 | 2.51±0.91 | 2.33±1.03 | 0.509 | 0.835 |
| | Goal | 2.17±0.95 | 2.25±0.97 | 2.00±0.89 | 2.36±0.99 | 2.08±0.93 | 1.148 | |
| | Mean | 2.33±0.89 | 2.46±0.84 | 2.23±0.85 | 2.44±0.90 | 2.20±0.93 | 0.739 | |
| Teaching strategies | Teacher and students activity plan | 2.85±1.05 | 3.25±1.06 | 2.84±1.07 | 3.04±1.02 | 2.57±1.02 | 2.328 | 0.871 |
| | Motivation | 2.80±1.12 | 3.50±0.91 ^a | 2.93±1.05 ^{ab} | 2.94±1.21 ^a | 2.42±1.03 ^b | 4.040 ^{**} | |
| | Teaching and studying method | 2.74±0.91 | 3.08±1.09 | 2.70±0.84 | 2.87±0.90 | 2.56±0.90 | 1.554 | |
| | Teaching medium | 2.88±1.00 | 2.75±1.22 | 2.80±1.00 | 3.06±0.99 | 2.77±0.95 | 0.855 | |
| | Inducing students participate | 3.11±1.01 | 3.25±0.97 | 3.03±1.07 | 3.36±1.05 | 2.88±0.91 | 2.009 | |
| | Students deviation | 3.26±1.01 | 3.00±0.74 | 3.27±1.14 | 3.45±0.97 | 3.15±1.01 | 1.007 | |
| | Mean | 2.95±0.79 | 3.14±0.67 | 2.93±0.76 | 3.12±0.77 | 2.71±0.82 | 2.504 | |
| Practices | Description ability | 2.36±1.02 | 2.75±0.87 | 2.00±0.86 | 2.34±1.07 | 2.51±1.06 | 2.287 | 0.915 |
| | Voice (volume, speed, tone etc.) | 2.12±0.98 | 2.17±0.94 | 1.94±0.96 | 2.15±1.00 | 2.21±0.99 | 0.516 | |
| | Question | 2.51±1.02 | 3.00±0.74 ^a | 2.26±1.00 ^b | 2.72±1.08 ^{ab} | 2.33±0.98 ^b | 2.829 [*] | |
| | Praise | 2.43±0.93 | 2.67±0.99 | 2.23±0.92 | 2.53±0.88 | 2.42±0.96 | 0.951 | |
| | Scolding | 2.51±0.95 | 2.58±0.67 | 2.42±1.09 | 2.74±0.92 | 2.33±0.91 | 1.666 | |
| | Feedback | 2.50±0.91 | 2.67±0.99 | 2.23±0.88 | 2.62±0.92 | 2.52±0.90 | 1.337 | |
| | Practical training | 2.64±1.14 | 2.58±0.90 | 2.48±1.12 | 2.93±1.16 | 2.46±1.15 | 1.668 | |
| | Concentrate | 2.72±1.05 | 2.92±0.90 | 2.65±0.99 | 2.74±1.13 | 2.69±1.08 | 0.211 | |
| | Eye contact | 2.06±1.02 | 2.00±0.85 | 1.77±0.81 | 2.19±1.15 | 2.13±1.04 | 1.146 | |
| | Composition of writing on the board | 2.17±0.94 | 2.17±0.72 | 2.16±1.13 | 2.11±0.84 | 2.23±0.97 | 0.133 | |
| Mean | 2.41±0.75 | 2.55±0.65 | 2.21±0.70 | 2.51±0.74 | 2.38±0.81 | 1.130 | | |
| Knowledge | The method of evaluation | 2.65±1.07 | 2.58±0.90 | 2.84±1.21 | 2.70±1.08 | 2.50±1.01 | 0.682 | 0.843 |
| | Subject contents | 2.44±0.97 | 2.67±0.99 | 2.68±1.14 | 2.38±0.87 | 2.29±0.92 | 1.282 | |
| | Pedagogics | 2.86±1.04 | 3.25±1.06 | 3.16±0.97 | 2.83±1.03 | 2.58±1.05 | 2.651 | |
| | Media production | 2.88±1.12 | 2.75±0.97 | 2.87±1.18 | 2.96±1.16 | 2.85±1.11 | 0.135 | |
| | Mean | 2.74±0.86 | 2.81±0.83 | 2.89±0.92 | 2.72±0.83 | 2.56±0.88 | 0.983 | |
| Mean | 2.60±0.70 | 2.75±0.65 | 2.53±0.68 | 2.70±0.66 | 2.49±0.76 | 0.998 | 0.950 | |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Ryan-Einot-Gabriel-Welsch F test at p<0.05.

*p<0.05 **p<0.01.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Kim(2010c)의 고등학생의 식생활교육 요구도 조사연구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3.47±0.96점이었으나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는 3.16±0.67점, 흥미도는 3.23±0.95점으로 보고되어 학생들이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나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전략이 요구되었다.

각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수업전략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2.95±0.79), 다음으로 전문지식(2.74±0.86), 실행(2.41±0.75), 학습내용 구성(2.33±0.89) 영역 순으로 학습내용 구성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적게 느끼는 반면, 수업전략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습내용 구성 영역에서 제재선정의 어려움은 2.45/5점이었고, 학습목표 설정의 어려움은 2.17/5.00점으로 제재선정과 학습목표 설정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는 낮았다. 그러나 식생활수업이 갖는 어려움에 대한

서면 인터뷰 문항에서 식생활교육 내용 선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교육경력 3.5년의 A교사는

“가정을 왜 배우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당황스럽다. 이미 대중매체에서 식생활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수업내용이 그다지 흥미롭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고 하였고, 교육경력 16년의 B교사는

“평범한 지식 내용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하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시 가르치기에 너무 식상한 수업이라 여겨질 때 힘든 수업이 되었고, 전달해야 하는 영양소 지식은 많은데 비해 식생활수업 시간이 부족하여

Table 7. The awareness on the difficulties of dietary classes of Home Economics teachers as career

| Division | | Education career(years) | | | | | F |
|-----------------------|-------------------------------------|-------------------------|------------------------|-------------------------|-------------------------|------------------------|--------------------|
| | | -3 (n=7) | 3-10 (n=34) | 10-20 (n=21) | 20-25 (n=34) | 25- (n=43) | |
| Set up learning items | Theme | 3.14±1.07 | 2.41±1.02 | 2.38±0.87 | 2.59±0.86 | 2.28±1.05 | 1.429 |
| | Goal | 1.71±0.76 | 2.21±0.95 | 2.10±0.89 | 2.44±0.89 | 2.05±1.02 | 1.342 |
| | Mean | 2.43±0.67 | 2.31±0.92 | 2.24±0.85 | 2.51±0.78 | 2.16±1.00 | 0.798 |
| Teaching strategies | Teacher and student activity plan | 3.29±0.95 | 2.91±1.08 | 2.90±0.94 | 3.06±0.98 | 2.53±1.10 | 1.686 |
| | Motivation | 3.14±0.90 ^a | 3.09±1.11 ^a | 2.75±1.21 ^{ab} | 3.00±1.13 ^{ab} | 2.38±1.04 ^b | 2.576 [†] |
| | Teaching and studying method | 3.14±0.69 | 2.74±0.93 | 2.80±0.89 | 2.94±0.89 | 2.50±0.92 | 1.542 |
| | Teaching medium | 3.14±0.90 | 2.74±1.08 | 3.05±0.95 | 3.09±0.90 | 2.69±1.02 | 1.206 |
| | Induce student participate | 3.29±0.76 | 3.15±1.05 | 3.15±1.09 | 3.35±1.07 | 2.83±0.91 | 1.360 |
| | Students deviation | 3.00±1.00 | 3.38±1.02 | 3.40±1.05 | 3.35±1.04 | 3.07±0.97 | 0.770 |
| | Mean | 3.17±0.47 | 3.00±0.74 | 3.01±0.71 | 3.13±0.83 | 2.66±0.84 | 2.186 |
| Practices | Description ability | 2.57±0.79 | 2.24±0.96 | 2.10±1.04 | 2.50±1.11 | 2.44±1.03 | 0.778 |
| | Voice (volume, speed, tone etc.) | 2.57±0.98 | 2.03±0.97 | 1.76±0.70 | 2.24±1.05 | 2.21±1.03 | 1.382 |
| | Question | 2.86±1.07 | 2.50±0.96 | 2.52±1.12 | 2.71±1.03 | 2.29±1.00 | 1.026 |
| | Praise | 2.57±0.98 | 2.35±1.01 | 2.48±0.87 | 2.53±0.93 | 2.38±0.91 | 0.233 |
| | Scolding | 3.14±0.38 | 2.41±0.99 | 2.76±1.00 | 2.50±0.90 | 2.38±0.96 | 1.464 |
| | Feedback | 2.43±1.13 | 2.32±0.84 | 2.62±0.92 | 2.74±0.96 | 2.40±0.89 | 1.097 |
| | Practical training | 3.00±0.58 | 2.50±1.11 | 3.10±1.12 | 2.68±1.25 | 2.43±1.11 | 1.517 |
| | Concentrate | 3.14±0.69 | 2.62±1.02 | 2.76±1.04 | 2.82±1.22 | 2.62±1.01 | 0.542 |
| | Eye contact | 2.14±1.22 | 1.88±0.81 | 2.00±0.95 | 2.09±1.16 | 2.19±1.09 | 0.455 |
| | Composition of writing on the board | 2.43±0.98 | 2.26±1.02 | 1.90±0.83 | 2.26±0.96 | 2.10±0.91 | 0.783 |
| Mean | 2.69±0.59 | 2.31±0.74 | 2.39±0.62 | 2.51±0.83 | 2.34±0.78 | 0.609 | |
| Knowledge | The method of evaluation | 3.00±0.82 | 2.74±1.08 | 2.81±1.12 | 2.62±1.13 | 2.48±1.04 | 0.634 |
| | Subject contents | 2.71±0.76 | 2.59±1.10 | 2.48±1.03 | 2.47±0.90 | 2.24±0.91 | 0.810 |
| | Pedagogics | 3.29±0.76 ^a | 3.15±1.05 ^a | 2.86±1.01 ^{ab} | 2.97±1.09 ^{ab} | 2.45±0.97 ^b | 2.769 [†] |
| | Media production | 3.00±1.16 | 2.82±1.14 | 2.86±1.11 | 3.15±1.11 | 2.71±1.13 | 0.750 |
| | Mean | 3.00±0.78 | 2.82±0.90 | 2.75±0.81 | 2.80±0.85 | 2.47±0.89 | 1.259 |
| Mean | 2.85±0.49 | 2.59±0.71 | 2.61±0.54 | 2.73±0.74 | 2.44±0.76 | 1.051 | |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y Ryan-Einot-Gabriel-Welsch F test at p<0.05.

*p<0.05.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때 어려움이 많다.”

고 하여 식생활교육 내용선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최근 식생활교육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9)의 제정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대중매체 등을 통한 식생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 내용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교과의 식생활교육에서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위한 내용선정이 아닌 가정교과교육의 의미를 생각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Yu와 Chae(2009)는 가정교과교육학 지식(H-PCK)에 관한 가정교과교사의 반성적 성찰연구에서 가정교과 식생활수업에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용이하게 실행

하기 위해서는 왜 가르쳐야 하는 지, 학생이 어떤 인간이 되었으면 좋은지를 결정하고, 그 고민에 따라 내용요소를 선정 하라고 권장하였다. 이러한 교육내용 선정 후에는 어떻게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독창적인 방법으로 가정교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제시 및 전개는 식상해지기 쉬운 수업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습 동기 및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과교육의 의미전달 및 실제 행동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수업진행과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위한 수업전략에 대한 연구 및 교사연수, 컨설팅이 요구되었다.

식생활수업 시 느끼는 어려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업전략 영역에서는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진행이

3.26±1.0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생 참여유도(3.11±1.01), 적절한 교수·학습 매체 선정(2.88±1.00), 교사 및 학생활동 계획(2.85±1.05), 동기유발 방법 선정(2.80±1.12), 교수·학습 방법 선정(2.74±0.91) 순으로 개인 차를 고려한 수업진행, 학생참여 유도에 대한 컨설팅 자료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기유발 방법 선정의 어려운 정도는 연령과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p<0.05$) 20대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3.50±0.9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교사(2.94±1.21), 30대 교사(2.93±1.05), 50대 이상의 교사(2.42±1.03) 순이었다.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3년 미만 경력교사의 점수가 3.14±0.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10년(3.09±1.11), 20-25년(3.00±1.13), 10-20년(2.75±1.21), 25년 이상(2.38±1.04) 순으로 초임 및 40대 교사, 교직경력 10년 미만교사와 20-25년 된 교사들이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직경력 10-20년 사이의 중견교사들은 특히 학생 특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흥미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소외된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어렵다고 하였고 보고한 Kim(2011)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실행영역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서는 주의집중 유도가 2.72±1.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기 지도(2.64±1.14), 꾸중 등의 부적 강화(2.51±0.95), 적절한 발문(2.51±1.02), 칭찬 등의 정적 강화(2.43±0.93), 학생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설명(2.36±1.02), 구조적이고 명료한 판서(2.17±0.94), 언어 사용(크기, 속도, 어조 등, 2.12±0.98), 시선 처리(2.06±1.02) 순이었으며, 발문의 어려운 정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05$), 20대가 3.00±0.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2.72±1.08), 50대 이상(2.33±0.98), 30대(2.26±1.00) 순으로 20대와 40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문에 대한 컨설팅 자료의 개발도 요구되었다.

교수활동 전문지식 영역에서는 매체제작에 대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2.88±1.12)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교수법에 대한 지식(2.86±1.04), 평가 방법(2.65±1.07), 교과 내용 지식(2.44±0.97) 순이었다. 최근 교과수업에 대한 전문성은

학생들이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설명하고,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인 내용교수지식(PCK)의 발달이 강조되고 있다(Yu & Chae, 2009). 가정교과사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계획되고 실시되는 흥미로운 식생활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교과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직접 배우게 할 뿐 아니라 식생활교육 만족도를 높여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다. 교수법에 대한 어려운 정도는 교육경력 3년 미만의 교사가 3.29±0.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10년(3.15±1.05), 20-25년(2.97±1.09), 10-20년(2.86±1.01), 25년 이상(2.45±0.97) 순으로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p<0.05$) 경력 10년 미만의 교사와 20-25년 경력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이 요구되었다.

Kwon et al.(2011)의 가정교과사의 수업문화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정한다는 항목의 3.91±0.63/5.00점, 학생이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자료 활용의 어려움이 3.94±0.63/5.00점, 학생활동 위주의 수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항목 점수가 2.97±0.97/5.00점,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시키기 어려운 정도는 2.91±1.02/5.00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Nam과 Chae(2008)의 가정교과사의 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교수·학습 방법 중 재미있는 수업, 협동수업 및 토론수업 운영,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2010b)의 중학생들의 가정과 식생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3.5%, '만족' 및 '매우 만족'이 35.3%로 높은 편이었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의식 위주의 수업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험·실습수업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Jeon(2010)은 가정교과에서 강조하는 실천적인 학습활동은 수업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에 비중을 두고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식생활교육이 갖는 의미와 특수성상, 가장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면에서의 직접(유사) 체험을 제공해야 하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실습법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교사경력 27년의 C교사는 실기수업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가정교과가 중학교 3개 학년에서 다 가르쳐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년간 연계가 어렵고, 특히 식생활수업의 경우 실습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효과적이데 시간배당이나 예산관계로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곤란을 겪게 된다.”

고 응답하여 가정교과의 식생활수업에서 수업능력 외에도 시간조정, 실습준비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가정교사의 식생활수업에서의 어려운 정도에 대한 전체 평균에서는 연령과 경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40대 교사 및 20-25년의 경력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운 정도가 교육경력 3년 미만의 교사 다음으로 높아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능력 및 수업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교육경력 3년 미만의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장학이나 교사연수 및 수업컨설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

V. 결 론

가정교사의 수업컨설팅 및 식생활수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업공개에 대한 부담은 ‘매우 많다’고 응답한 교사가 25명(18.0%), ‘많은 편이다’ 62명(44.6%), ‘보통’ 37명(26.6%)으로 연령과 경력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가정교과교사가 수업공개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 3명(2.2%), ‘높은 편이다’ 61명(43.9%), ‘보통’ 92명(66.2%)으로 대부분의 가정교과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대해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자신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3명(2.2%), ‘높은 편이다’ 38명(27.3%), ‘보통’ 56명(40.3%), ‘적은 편이다’ 54명(38.8%), ‘매우 적다’ 16명(11.5%)이었고,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p<0.001$) 교육경력 10-20년 된 교사와 25년 이상 된 교사

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반면, 교육경력 20-25년 교사 76.4%와 3년 미만교사의 85.8%가 수업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다고 응답하였다.

2. 수업컨설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수업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56명(40.3%)이었으며, 받아본 적도 해준 적도 없는 교사는 48명(34.5%)으로 30대와 50대 교사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수업컨설팅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의 가정교과교사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65명, 46.8%),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68명, 48.9%), 수업컨설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받고 싶은 교사가 78명(46.1%), 보통이다가 46명(33.1%)으로 대부분의 가정교과교사는 수업컨설팅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람은 수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동료교사가 106명(76.3%)으로 동료교사에 의한 컨설팅요구가 높았다.

3. 식생활수업에 대한 부담은 ‘보통’ 56명(40.3%), ‘적은 편이다’ 54명(38.8%)으로 연령과 경력에 상관없이 식생활수업에 대한 부담은 대체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수업에서 학생의 개인차에 대한 수업전략으로는 학생의 반응 관찰을 통한 피드백이 102명(73.4%)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경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p<0.05$) 교육경력 3년 미만의 교사와 20-25년 경력교사들이 개인차에 대한 교육으로 예·복습이나 방과후 지도와 상담 등의 활동을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업방법은 설명식 수업 81명(58.3%), 토론·토의수업 6명(4.3%), 탐구학습 14명(10.1%), 문제해결수업 6명(4.3%), 실험·실습수업 25명(18.0%), 기타가 7명(5.0%)으로 40대 이상의 교사들이 식생활수업에서 실험·실습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교육경력 3년 미만 교사들은 주로 설명식수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교과교사는 20-40%의 학생활동으로 식생활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p<0.05$) 20대와 40대 교사들이 학생활동 비율이 높은 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식생활수업의 영역별 어려운 정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2.60\pm 0.70/5.00$ 점으로 식생활수업이 가정교과교사에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전체 영역에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3.26 ± 1.01), 학생참여 유도(3.11 ± 1.01),

적절한 교수매체 선정(2.28±1.12) 및 제작(2.28±1.12), 교수법에 대한 지식(2.86±1.04) 영역에서 어려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각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수업전략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2.95±0.79), 다음으로 전문지식(2.74±0.86), 실행(2.41±0.75), 학습내용 구성(2.33±0.89) 영역 순이었으나 식생활수업의 어려움에 대한 서면인터뷰에서는 식생활교육 내용선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령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수업공개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업공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업컨설팅이 요구되었으며, 수업컨설팅에 대한 가정교과교사의 인식은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정교과교사의 수업능력 향상 및 수업공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정교과교사의 수업컨설팅으로서의 활동도 도와줄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가정교과교사들은 식생활수업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낮으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전략에 대해서는 어려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초임교사와 40대 교사, 교육경력 20-25년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교육경력 10-20년, 25년 이상 교사들은 수업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낮으면서도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전략이나 개인차를 위한 기타 활동은 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정교과교사의 식생활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과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식생활교육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컨설팅 및 교사 연수와 더불어 교사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성장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교과교육은 주변 환경변화와 함께 매 수업시간마다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된다. 매 시간 똑 같은 수업방식과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수업은 가정교과 수업에 대한 식상함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고, 반성하여 수업 전문가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찾아내고,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 연구와 컨설팅으로 자신과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수업전략을 개발하는 등 창의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가정교과 교사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수업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정립시켜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 영역 중 식생활수업에서의 수업전략 및 수업진행 시 어려운 정도에 대해서만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통합교과로서의 가정교과교육을 위해서 차후 다른 영역 수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 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혁규 (2009). 교사의 자기주도적 교수역량 강화 및 확산을 위한 PDS(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 구축 연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연차호(pp51-68)
- 이혁규 · 김남수 · 김병수 · 신지혜 (2011). <최고의 교사> 수업 사례를 활용한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한국열린교육학회 학술대회.(pp97-139)
- CDC & NCHS (2011). *Health, United States*, <http://www.cdc.gov/nchs/hus/contents2011.htm#074>.
- Cho, Y. N. (2012).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gnition on microteaching participating in consulting supervision.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3(1), 1-18.
- Choi, S. W. (2011). Reexamination of Teachers' Competence for Instru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Principles*, 16(1), 61-85.
- Choi, S. Y., Noh, S. Goo (2008). Survey on teachers' perception for the consulting i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27(2), 23-30.
- Chung, K. H., Kim, K. S., Kim, B. C & Kim, T. E. (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dership of teachers in Kore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I 2008-06.
- Go, M. Y., & Chae, J. H. (2010). Middle school Home

-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and actual performance of self-supervision at school related to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4), 91-1071.
- Grossman, P., Hammerness K., & McDonald, M. (2009). Redefining teaching, re-imagining teacher education.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15(2), 273-289.
- Jeon, S. K. (2010). Educational meanings and effective practical plans of school dietary lif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1), 117-135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Incheon.
- Kane, R., Sandretto, S., & Health, C. (2002). Telling half the story: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the teaching beliefs and practices of university academ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2(2), 177-228.
- Kang, Y. O., & Moon, K. H. (2009). Survey research on the cognition of educational subjects about the contents of teacher competency evalu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4), 1-29.
- Kember, D., & Kwan, K. (2000). Lecturers' approaches to teaching and their relationship to conceptions of good teaching. *Instructional Science*, 28(5), 469-490.
- Kim, J. H. (2010a). Studies inquiry on school dietary education in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189-203.
- Kim, J. S. (2011). A study of teacher as curriculum practitioner through teacher's reflec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1), 187-208.
- Kim, Y. H. (2010b). A survey on the eating behaviour and nutrition knowledg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satisfaction of dietary life instruction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117-128.
- Kim, Y. H. (2010c). A study on the needs of dietary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4), 77-90.
- Kim, J. H., & Kim, Y. K. (2010). Dietary Education Support Act and Middle School Dietary Education - Focusing on the Dietary Section of the Revised 2007. *Home Economics Textbooks*, 22(4), 1-13.1)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1). *실과(기술·가정)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
- Kwon, K. Y., Lee, K. Y., & Lee, S. H. (2011).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perspective and their instructional cultur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4), 125-141.1)
- Kwon, S. Y. (2010). The differences in teachers' conceptions of the importance and practice of good teaching according to the level of school and teaching experience. *열린교육연구*, 18(4), 78-103.
- Lee H. G. (2007). A research on the necessities and methods of criticism of classroom instruction. *교육인류학연구*, 10(1), 155-185.
- Lee, M. H., Lee, K. J., & Shin, J. C. (2010). An analysis on teachers' perception of school based autonomous supervision. *Education research*, 33, 1-22.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9).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http://likms.assembly.go.kr/law/>.
- Ministry of Education (2011).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0].
- Ministry of Education (2013). *교원능력 개발 평가 매뉴얼(중등학교용)*.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2). 2011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2차년도.
- Nam, Y. J., & Chae, J. H. (2008).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and Needs of Self

Supervision Related to Home Economics Subject Matte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 45-62.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McGraw-hill New York.

Park, H. J., & Shin, H. W. (2006). Teaching behavior, confidence and satisfaction among teachers who solo-teach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high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2), 111-123.

Park, S. H. (2011). The reality of teaching consulting and its deconstruc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3(4), 87-105.

Seo, K. H. (2005). Reflection and practice: on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3(2), 285-310.

Yu, N. S., & Chae, J. H. (2009). Home economics teachers' reflection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home economics education(H-PCK).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2), 83-107.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과교사의 수업컨설팅과 식생활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가정과교사 13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수업공개에 대하여 62.6%의 교사가 부담을 많이 갖는다고 응답하였고,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교사는 29.5% 뿐이었다. 수업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56명(40.3%)이었으며, 받아본 적도 해준 적도 없는 교사는 48명(34.5%)으로 30대와 50대 이상의 수업컨설팅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 < 0.05$). 대부분의 가정과교사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업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65명, 46.8%), 수업컨설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받고 싶다고 응답한 교사가 78명(46.1%), 보통이다 46명(33.1%)으로 대부분의 가정과교사는 수업컨설팅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람은 106명(76.3%)의 교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동료교사에 의한 컨설팅을 원하였다. 식생활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수매체는 시청각자료가 가장 많았고(47.5%), 개인차에 대한 피드백은 학생의 반응관찰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었으며(73.4%), 강의식 수업이 58.3%로 가장 많이 실시되는 수업형태로 조사되었다. 식생활수업 진행 시 갖는 어려움의 정도는 2.60/5.00점이었으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진행의 어려움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참여 유도(3.11점), 적절한 교수매체 선정(2.88점), 매체 제작(2.88점), 교사 및 학생활동 계획(2.85점) 순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수업공개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에서 가정과교사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가정과교사는 수업반성, 자기장학, 수업컨설팅을 통하여 자신의 수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으로 식생활 수업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식생활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01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02월 01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09월 23일